

## 예술정보의 집대성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오양열 예술정보관장

culture | art

예술 창조활동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기록을 통해 생성되는 예술 정보는 그 안에 인류의 오랜 경험과 예술적 상상력이 총체적으로 녹아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후대 또는 동시대의 창작자, 연구자, 감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그 자체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 예술정보관 운영 실태와 상황 검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전환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현장 예술인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예술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민간 자원에 맡김으로써 보다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유연성을 갖춘 예술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수년 전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 필요성이 예술계에서 제기된 후 법제화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기본적인 방향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예술계 안팎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문예진흥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4개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립되는 주장이 계속돼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 예술극장과 미술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술정보관과 문화예술연수원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직 편제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몇 가지 일치되지 않은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은 위원회의 전반적인 정책기조하에서 앞으로 예술정보관이 어떻게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인지, 그 지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예술정보가 갖는 특성과 의의를 생각해 본 후, 현재의 예술정보관 운영실태와 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체제하에서 예술정보관이 나아갈 궁극적인 지향점과 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다음, 예술교육 지원기능으로의 특화 의견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 또 다른 형태의 지원, 예술정보

문예진흥원은 개원 이래 수많은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날로 늘어만 가

는 지원 수요에 비해 한정된 재원만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다 보니 매년 지원대상자보다 두 배나 많은 지원신청자들을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독창성과 주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심의제도라는 하나의 규격화된 잣대로 재단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이 구축해 놓은 예술세계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어려운 현실을 버텨 온 작가, 예술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이들로부터 매년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갖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한계와 부작용은 간접지원 형식의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금전적인 지원은 수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통해 특정한 예술인이나 단체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지만, 공공재(Public Goods)로 제공되는 비금전적 지원은 수요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예진흥원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비금전적 지원인 '예술정보'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인터넷이라는 현대판 미술랩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예술정보는 단순히 제공·소진되는 소비재가 아니다. 예술정보는 이를 제공받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또 하나의 예술콘텐츠, 즉 예술정보를 재생산해 낸다는 점에서 자기확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순수예술이 순수예술로만 머물지 않고 문화산업을 발흥시키는 기초예술이 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윈도 효과(window effects)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에 와서 그 동안 예술정보관이 제공한 예술정보가 새로운 예술콘텐츠의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계량적으로 밝혀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술정보관 운영에 투입한 금액과 대비하여, 직접적인 금전 지원에 의한 효과와 비교해 보면 결코 이에 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다양한 형식의 기록을 통해 생성되는 예술정보는 그 안에 인류의 오랜 경험과 예술적 상상력이 총체적으로 녹아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후대 또는 동시대의 창작자, 연구자, 감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정보



한국동인지문화관 사이트 <http://www.dongjin.or.kr/>

와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그 자체로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예술콘텐츠로서의 예술정보는 창작자나 감상자 모두에게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일반국민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손쉽게 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술정보를 자주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예술적 안목과 감각은 국가 사회 전체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술 창작물에 대한 기록정보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화 수준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 창작의 원천으로서의 예술적 영감은 - 적어도 대부분은 -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예술적 창작물들을 꾸준히 감상, 이를 내면에 체화시켜 축적된 역량이 어떤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동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기록물과 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 일은 현재의 예술계가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이다. 바로 오늘 디지털화되어 보존, 축적되고 있는 한 조각의 육필 악보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뒤 어느 누군가의 영감을 자극하여 위대한 예술작품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앞으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을 때 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창작지원 등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겠지만, 오늘날 예술정보관이 축적해 놓은 예술자료와 정보DB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 예술정보관 운영의 현황

문예진흥원 예술정보관(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내 소재)은 각종 문화예술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여 문화예술인 및 일반인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연구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9년에 개관하였다. 개관 이래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2005년 6월 현재 도서, 비도서, 영상, 사진, 음반 등 각종 형태의 국내외 문화예술 정보자료 23만 점(현재 정리 중인 음악자료 10만 점은 별도)을 소장하고 있다. 자료복사 등 실비를 받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 외에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무휴로 개관하며,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문을 연다. 예술정보관은 현재 1,650명의 평생회원을 확보하고 소장 자료의 대출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종합예술 전문도서관인 예술정보관은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2006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도서관정보대회(IFLA 총회)' 참가자들이 방문할 9개 전문도서관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예술정보관이 소장하고 있는 공연 영상자료, 공연대본, 미술도록, 전시 및 공연 팸플릿 등은 국내에서 예술정보관만이 유일하게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 시대의 예술을 증언하는 사료(史料)이자 예술의 창작과 연구, 그리고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산업 진흥의 기초 자료로서 더 없이 소중한 국가적인 자산이다. 라이브러리(Library)와 아카이브(Archive)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예술정보관이 일반 도서관과 차별화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비도서자료들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상품 유통경로를 통해 수집될 수 없는 것들이다. 예술정보관은 현재 예술아카이브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비도서자료의 수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술 분야 도서자료는 절판이 되지 않는 한 나중이라도 추가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대본, 악보, 도록, 프로그램, 팸플릿 등 비도서자료는 공연·전시가 이루어지는 해당시점이 아니면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예술정보관은 이러한 귀중한 자료가 손상되지 않고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문예진흥원 예술정보관

작업을 빠르게 진행시켜 왔다. 또 이러한 작업의 결과를 그때그때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술정보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예술정보관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소장 자료를 활용한 덕분에 예술정보관이 직접 운영하는 여러 개의 사이트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사이버예술정보관(library.kcaf.or.kr), 문화예술정보서비스(www.artsonline.or.kr), 동인지문학관(www.donginji.or.kr) 등 세 사이트에 대한 일일 평균 접속건수는 3,450여 건(2005. 4. 27~5. 24, 28일간 96,417건)에 이르고 있다. 예술정보관을 직접 찾아오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130~150명 수준임에 비하면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온라인 이용 추세 증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예술정보관은 원로예술인들의 예술사 관련 증언을 채록하는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을 3년째 계속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를 독립된 사이트(oralhistory.kcaf.or.kr)를 통해 회원제로 공개하고 있다.

예술정보관은 또한 예술교육을 통한 예술애호인(Dilettante) 양성에 기여하고자 세 개의 '고전음악 강좌'와 한 개의 '시창작 교실'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강료로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굴지의 시설기자체를 갖춘 영상음악실에서, DVD를 통해 마에스트로와 만나는 '명작 감상회', 유니버설발레단과 공동 주최하는 '명작발레 감상회', 쇼팽 스페셜리스트의 자세한 해설과 함께 하는 '쇼팽음악 감상회'를 무료로 운영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예술정보관과 같이 다양한 장르에 구축되어 있는 각종 매체형식의 방대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소장 자료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

문예진흥원이 위원회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예술정보관의 기능과 역할, 조직상의 편제도 위원회 체제에 맞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간 대외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던 운영상의 기초는 유지하되,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국내외 자료 수집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 내부의 정책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Art Information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예술정보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일 터이다.

### 위원회 체제 하 예술정보관의 지향

불원간 문예진흥원이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예술정보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직상의 편제도 위원회 체제에 맞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예술정보관은 1979년에 개관한 이래 예산, 인력 등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고 자부한다. 여기서는 앞서 지금까지 설명한 예술정보관의 기능과 역할 외에 위원회 체제 하에서 예술정보관이 새로이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 1) 위원회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

이 글 모두(冒頭)에서 언급했듯이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은 현장 예술인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예술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민간 자율에 맡김으로써 보다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유연성을 갖춘 예술지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체제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기구로서, 문예진흥원이 기금의 관리와 배분을 위주로 한 지원행정에 머물렀던 반면, 위원회는 우리나라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정책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 예술계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지만, 문화환경의 변화에 따른 예술계 현장의 정책수요를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예술정보관은 이를 위해 예술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그간 예술정보관이 대외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던 운영상의 기초는 유지하되,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 내부의 정책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2) 현장 및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 비도서자료를 적극 수집

오늘날 예술 분야에서 생성되는 정보는 다양한 내용에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물량 또한 엄청나다. 문화산업의 발달과 대용량 기록매체의 개발로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규모로 생산되고 있는 예술 분야 정보기록물들을 예술가 개인이나 예술단체가 수집·관리·이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입이 가능한 도서·음반·영상자료도 그렇지만 비도서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의 접근이 더욱 어렵다. 따라서 비도서자료의 수집과 제공은 예술정보관과 같은 비영리조직이 맡아야 하며, 직접적인 수집과 함께 개인소장 예술자료의 기증운동을 펼쳐 소장 자료의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위원회는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를 크게 중시하는 체제이면서, 각 지역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외국 유사기관과의 교류와 연대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 및 지역, 그리고 외국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면 정보자료 수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집된 자료의 위원회 정책결정 과정에의 활용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 3) 꼭 필요한, 그러나 수익성이 없는 자료를 제작·보급

문예진흥원은 1980년대 초에 전국을 순회하며 무속인들



의 굿 퍼포먼스를, 처음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마감을 짓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영상에 담은 작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이 영상자료는 오늘날 민속학 분야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공연대본과 함께 예술정보관 소장자료 중 가장 빈번하게 열람되는 자료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영상자료 제작사업은 비영리단체인 문예진흥원이 아니면 시행하기 힘든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민간화 된다고 하여 비영리사업을 도외시한다면 위원회 전환의 의미는 반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후인 2006년부터 1980년대 초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의 무속에 대한 영상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올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역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과 시의성(時宜性)에 비추어 지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4) 푼돈을 거둬들이는 IP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제고

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도서관과 자료관은 비영리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서관과 자료관사업 자체가 시설과 자료 구입, 그리고 인건비로 투입되어야 하는 지출예산의 규모에 비해 입장료, 열람비, 복사비 등의 징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규모는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도서관과 자료관은 별도의 유료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정한 한계 내에서나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개인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수입 규모는 큰 IP(정보제공)사업이 도서관과 자료관의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예술정보관이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일정 항목을 온라인 상에서 건당 50원씩 판매하는 식이다. 예술정보관은 2006년도에 IP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 5) Know-where 시대 도래에 따른 정보 검색기능 강화

끊임없이 왜(Why)? 라는 질문을 통해 사물과 사상(事象)의 근원을 캐내려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시대인 Know-why의 시대를 지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실제적인 지식, 기술, 요령 등이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Know-how의 시대를 살아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매체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원하는 정도 이상으로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바로 Know-where이다. 이는 정보처리 및 통신 기술, 특히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지식의 개념이 변화하고, 다른 누군가에게서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 어떤 일을 하는 방법(how)을 쌓는 것 못지 않게 원하는 정보가 어디(where)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춰 예술정보관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과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D/B화한 자료에 대한 메타 데이터 구축 등 정보 검색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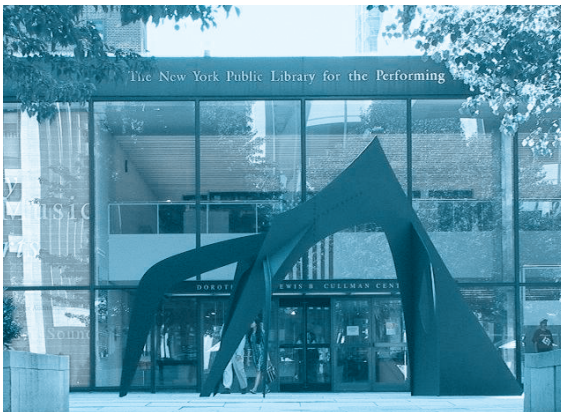
6) 예술정보관, 유비쿼터스 시대(Ubiquitous Era)의 출아가 가까운 장래에 우리 사회는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미 휴대폰의 경우는 그것이 가능해졌지만, 가령 시계나 안경, 카스테레오, 냉장고 등에 컴퓨터를 집어넣음으로써 어느 장소에서나 네트워크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마치 신(God)과도 같이 시공을 초월하여 온 사회에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편재하는(Ubiquitous)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예술정보관은 멀티미디어 디지털 자료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 단순히 예술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수집된 정보를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그리하여 위원회 체제 하에서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끌어 갈 총아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정보관이 꿈꾸는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 뉴욕공연예술도서관

뉴욕 링컨센터에 자리 잡고 있는 뉴욕공연예술도서관은 뉴욕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도서관이다. 900만 점의 방대한 공연예술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공연예술인들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유형은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책자는 물론이거니와 공연에서 사용했던 각종 소품들과 리허설에 관한 기록들, 편지, 무대 세트의 미니어처, 의상디자인, 팸플릿, 포스터, 사진, 비디오

예술정보관은 사명감을 갖고 오늘 생산된 예술정보자료 한 점 한 점을 챙기고 체계화하고 디지털화해 나간다면 위원회 체제 하에서 기본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역할의 수용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예술정보의 집대성과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Know-where



우리나라 예술정보관의 이상형인 뉴욕공연예술도서관

오 등 그 폭이 매우 넓다. 예술가들은 이 곳의 소장 자료를 활용해서 작품 창작을 위한 영감과 방향을 얻고, 창작 과정의 기록은 다시 이 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되어 공연 예술 창작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 이외에도 박물관, 영상제작센터, 예술계에 대한 자문, 공연 공간, 강연과 세미나뿐만 아니라 각종 콘서트와 이벤트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공연예술 창작 및 연구 활동을 진흥코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장황하게 뉴욕공연예술도서관을 소개하는 것은, 예술정보관 직원들에게 뉴욕공연 예술도서관은 우리 예술정보관의 이상형으로서 머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명감을 갖고 오늘 생산된 예술정보자료 한 점 한 점을 챙기고 체계화하고 디지털화해 나간다면 수십 년 후 우리 예술정보관도 세계의 우수한 예술아카이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고야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전환을 앞두고 예술정보관을 예술교육 지원기능을 위한 특화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도서관 및 자료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자료의 수집과 자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자료의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회 체제가 예술계 현장 및 지역, 그리고 외국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정보자료 수집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카이브로서의 정보자료 수집, 특히 비도서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료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예술교육 지원기능으로서의 특화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실제로 예술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예술정보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료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더구나 — 교육대상에 따라 활용되는 자료의 수준에 차이는 있겠지만 —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이 갖는 기본적인 대중성으로 말미암아 활용이 필요한 자료는 지극히 대중적인 것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예술정보관의 소장 자료는 지난 26년 동안 예술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집된 것으로 예술교육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위원회 체제 하에서 기본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역할의 수용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예술정보의 집대성과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